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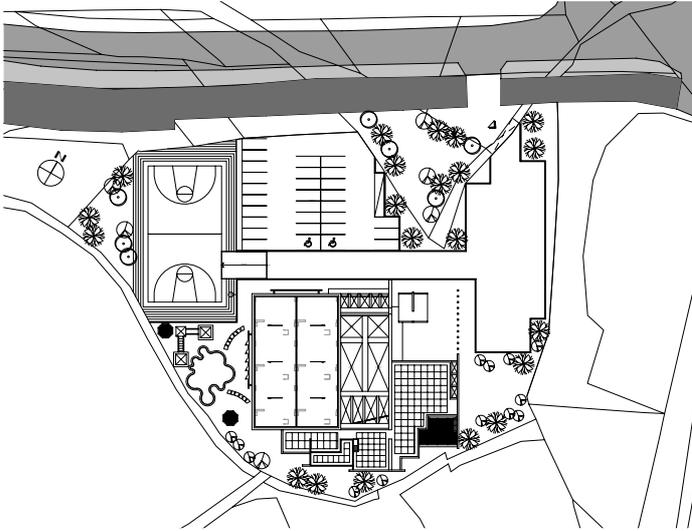
계획작품 | Process works

정병배 · 이시훈 / (주) 그룹환경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ung Byung-Bai & Lee See-Hoon

정읍신광 교회 Jeongeup Shin Kwang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전라북도 정읍시 송산동 52번지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대지면적 5,253.00㎡
- 건축면적 1,049.37㎡
- 연면적 3,182.10㎡
- 건폐율 19.98%
- 용적률 56.88%
-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철골조:예배당지붕)
-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 / 카펫타일
무늬목 마감
-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점토벽돌 치장쌓기
일부 테라코타마감
- 설계담당 허재형(총괄), 손혜정, 김상범, 남궁현, 송우철



건축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하는 매순간 각기 다른 환경조건, 용도, 이용자 행태의 분석과 그것들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여러 조건을 포용하며 주변과 상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건축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종교건축에 있어서는 경제논리만으로 우후죽순처럼 생산되는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이용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종교적인 심미적상황의 요구에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

현재 신광교회의 성전은 1968년에 완공되어 37년을 넘게 사용한 비교적 짧지 않은 이력으로 세월의 표정이 묻어있다. 성전을 면밀히 보면 건축당시의 여러 조건과 시공 상황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예배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그러했고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는 외관의 돌출부위문양들이 그러했다.

2003년 9월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출발한 성전건립 추진은 교회관계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신앙심으로 내딛은 첫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회건축위원의 추천을 받은 4개의 건축사사무소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고, 그로부터 한 달여간의 기간 내에 설계안을 제출하는 지명현상설계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현장설명회와 설계지침으로 이루어 보건데, 교회성전건립추진은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지선정과 이용자에 따른 용도간의 공간조건을 치밀하고도 효율적으로 오랜 기간 구상했다는 것을 느꼈다.

대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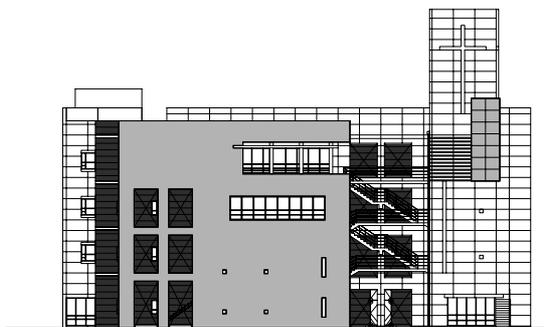
대지는 정읍시를 관통하는 정읍천의 상류이며, 내장산으로 향하는 국도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그곳은 대추농원으로 쓰

이고 있으며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주변에는 아파트 몇 동이 위치해 있고, 넓게 뻗은 국도가 행해 보일 정도로 도시적 맥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이 땅은 법정 건폐율로 인해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되는 면적은 충분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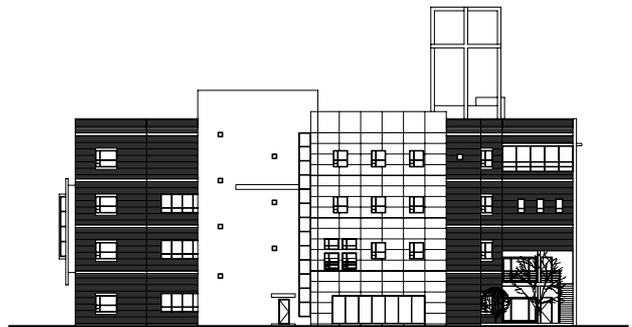
먼저 배치에 있어서는 외부공간의 활용을 높힐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변에 인접건물이 없다는 상황으로 인해 모든 면이 정면성을 갖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했다. 대지의 위치가 다소 외져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동선의 배려도 놓칠 수 없는 점하였고, 운동시설과 놀이터의 배치도 건물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결정지어지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지 주변의 국도를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여 그 축에 순응하면서 인지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곳을 설정하여 배치하였다



좌측면도



배면도

하늘, 대지, 성전 잇기

건물 전체의 요소는 예배당매스와 벽, 종탑 그리고 부속용도의 매스로 이루어진다.

이 요소들은 각각 마당을 중심으로 하늘과 대지와 성전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부공간인 마당을 감싸고 있는 배치는 내외부의 공간적 요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예배당에 대치되어 있는 긴장감 있는 벽은 그 두께를 60cm로 하여 원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왜소함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벽과 예배당사이의 마당으로 향하는 동선에는 벽과 예배당을 이어주는 매스를 도입하여 누하 진입적인 요소로서 마당의 공간

연출을 돕도록 하였다.

평면구성에서는 1층에 유아시설인 유치원과 교회사무실 그리고 사택을 서로 분리하여 배치하였으며, 예배당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마당에 위치시켜 동선의 재미와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하였다.

2층은 교회의 중심시설인 예배본당과 소규모이지만 다목적 홀을 분리하여 계획하여 예배당의 보조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예배당은 목사님의 각별한 의도로 구상한 153평을 꼭 맞추어 달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고기를 잡은 수)요구를 반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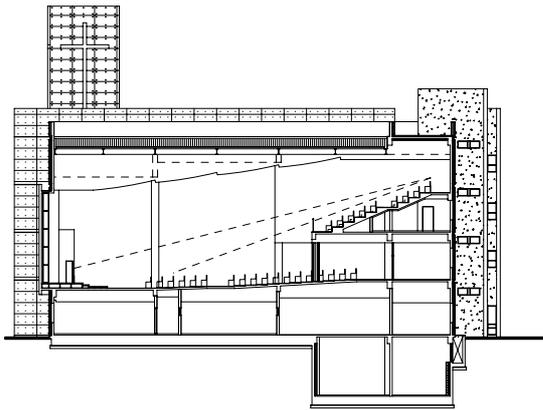
3층은 각 기능의 실들과 식당을 배치하였고, 4층에는 멀리 보이는 경치를 즐기며 운

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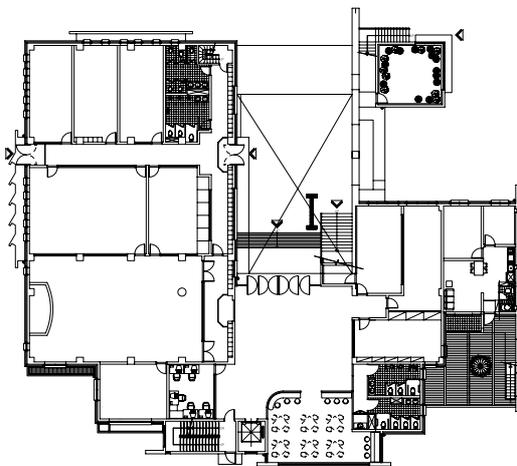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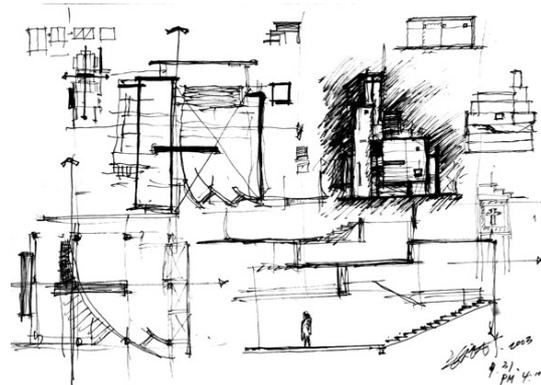
입면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료 선택 이었으며, 무채색의 노출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벽과 종탑에 적용 시켰다.

다사다난 했던 2004년도도 다 지나 갔다. 2004년도에 고건축답사를 포함 하더라도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전북 정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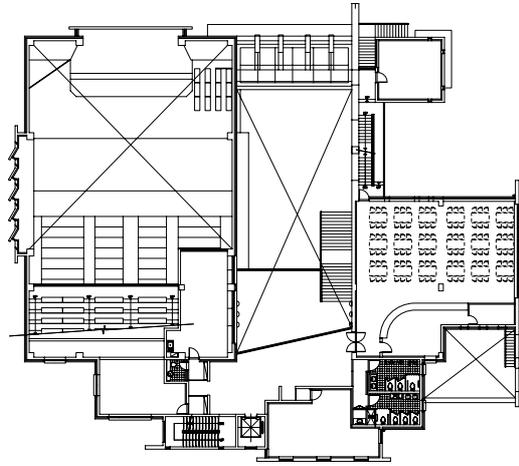
한달에 두 번 꼴로 1년간의 술한 협의를 거치면서, 계획의도를 잘 이해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2005년말에 완공되는 신광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글/허재형) ■



주단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